

< 또 한 해를 보내며 >

에베소서 5:8-10 / 새찬송가 310 (통일 4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1.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기쁘게 살아왔는지 살펴봅시다

고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은 또 우리의 참 기쁨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참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쁨을 가지려면 사랑의 기쁨을 가져야 하는데 사랑이란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줄수록 기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여러 귀한 것을 주셨고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엡5:10).

2.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첫째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요 15:10,11). 주님의 계명은 우리의 정당한 욕구(need)까지 억압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겁지 않습니다(요일5:3). 그럼에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욕구가 아니라 헛된 욕망(desire)의 구조 속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롬8:7,8). 욕망의 구조란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란 죄악 즉 음란, 방탕, 술 취함, 온갖 중독과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만사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 더러운 욕설로 이끄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이는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헛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믿음이 없어져 다시 불신자가 되거나 배교자가 되거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땅 끝까지 나아가리라’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히10:38).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세례 받기 전에는 소극적이었으나 성령세례를 받은 후에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행1:8). 적극적인 신앙이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땅 끝까지라도 나아가리라는 마음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이 명하신 곳이라면 땅 끝이라도 나아간 복음전파자들은 결국 자신의 삶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쓰디쓴 환멸을 맛볼 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막16:17).

마귀와 귀신은 간교하여 죄를 짓게 한 후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정죄함은 사람을 회개시키지도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정죄함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그러므로 정죄하는 마귀와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또 질병과 저주를 갖고 오는 악한 마귀 귀신 병마를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마6:10). 이것이 담대한 신앙이요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확신을 갖고 결국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정치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음을 믿고 책임감을 가지며 기도해야 합니다.

올 한해 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적용&실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켜 봅시다. 그러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그러했던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으니 감사’ 드리고 새해를 맞이합시다.